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8.(금) 11:00 < 9. 9.(토) 조간 > 배포 2023. 9. 8.(금)

대전·세종지역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 대전·세종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통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상시 점검(모니터링)
-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대외교섭에서 직접 대변, 통상환경 적응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 8.(금) 대전 호텔오노마 D-유니콘라운지에서 대전·세종 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세종 19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역기업들은 ①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22. 10월) 관련 중소기업 대응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②인도 등 외국의 인증제도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③수출 시 필요한 각종 지원책(바이어 비자, 현지법인 설립, 현지 세제 관련 정보제공 등) 확대, ④위생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지원 사업의 확대 등 수출 및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전·세종 지역의 19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대전·세종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정책과 지자체·지역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는 지역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각종 통상애로를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홍순파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신대근 (044-203-57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대전 · 세종 통상진흥기관협의회**

□ (일시/장소) ’23. 09. 08.(금), 14:00～16:00 /
호텔오노마 20층, D-유니콘라운지 이벤트홀

□ (참석자) **자유무역협정정책관(주재)**, 통상협정활용과장, 수출지원기관 19개, 7개 업체 등 약 26명

□ (목적) 지역수출기업의 통상.수출관련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진행순서)

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비고
14:30-14:35	5′	참석업체 소개	**센터장**
14:35-14:40	5′	모두 발언	**자유무역협정정책관**
14:40-15:30	50′	참가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 각 해당기관에서 답변	-
15:30-15:40	10′	마무리 발언	**자유무역협정정책관**